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들의 그런 삶 속에 기초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깊게 묵상함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날에 많은 사람의 주장과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 분위기를 상상해 보도록 하라

왜 어떤 사람은 모래위에 집을 지었을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소개한 사람들처럼 마지막에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 나의 삶에 중요한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였는데.... 앗! 그것이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뜻과 방법으로 진행한 많은 종교적인 일들 그것들은 종교적인 껍질을 입었으나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가?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며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사는게 더 효과적인 것처럼 칭찬을 듣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아니 그날은 분명히 온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당신은 그날이 올 것을 믿는가? 그래서 세상이 뭐라해도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르기를 힘쓰는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웃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와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와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아무런 문제나 고민없이 하나님을 내 방법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하기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아론의 두 아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모세는 이 일에 대하여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모세가 이 사건을 수습하는 방법과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아론의 두 아들은 그들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의도뿐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였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다고 설명한다. 그렇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거룩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며 누리라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가지로 인스탄트적이고 W가벼워진 우리 세대에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할 주제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예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음의 완성은 그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이들답게 살므로 그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확인되게 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그의 백성됨은 그런 특권과 책임을 같이 지는 일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돌아보자.

오늘 본문의 상황적 배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누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이실 반응들은 무엇이라고 약속하시는가?

그렇다 당신과 나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분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운행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일 뿐 아니라 놀라운 책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당신과 내가 만약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때문에 이 땅은 여전히 고통당하며 아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것은 부름 받은 대로 사는 것이다. 당신의 오늘 하루 속에서 부름 받은 대로 살아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당신이 밟는 모든 땅이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한다.